

Hana FX Weekly Letter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외환파생상품영업부

2025. 4. 14

주간 달러/원 동향(4/7~4/11)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미-중 상호 보복 관세 등에 따른 극심한 위험회피 분위기 속 급등 출발. 이어 관세 전쟁에 따른 침체 우려에 글로벌달러 약세 분위기였지만 미-중 갈등 확대 우려가 통화시장 위험회피 심리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위안화 절하 등으로 1,470원대 상향. 글로벌 달러 약세 분위기에다 상호 관세 둘러싼 미-중 갈등 확대 가능성 우려와 위안화 약세 반영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가격 상승
- 중반 들어, 중국의 미 관세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후, 추가 미국 50% 관세 부과 등으로 세계경기 침체 가속화 우려 급증한 가운데 국내 외환시장에서 외국인 포트폴리오 자금 급속 이탈 영향 전이되며 환율은 장중 연고점 경신하는 상승 강화
- 후반 들어, 간밤, 미국의 중국 제외 주요국 상호 관세 유예에 무역 긴장도 완화 속 큰 폭 하락. 이어 주 후반, 중국의 미국 추가 보복 관세 속에 달러 가치 매력도 저하와 경기침체 우려의 복합 요인 속 달러 약세에 원화 가치 강세 보이며 마감

달러/원 전망

- 미-중 관세 갈등 격화에 따른 미 경기침체 가능성 고조에 따른 달러인덱스내 주요 통화 강세 영향 반영 등으로 달러 가치 큰 폭 하락 양상 다소 이어질 전망
- 이에 따른 저가 인식 달러 매수 수요 흐름 등이 하단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예상거래범위

1,420원 ~ 1,435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70.6	1,476.7	1,430.2	1,434.1	-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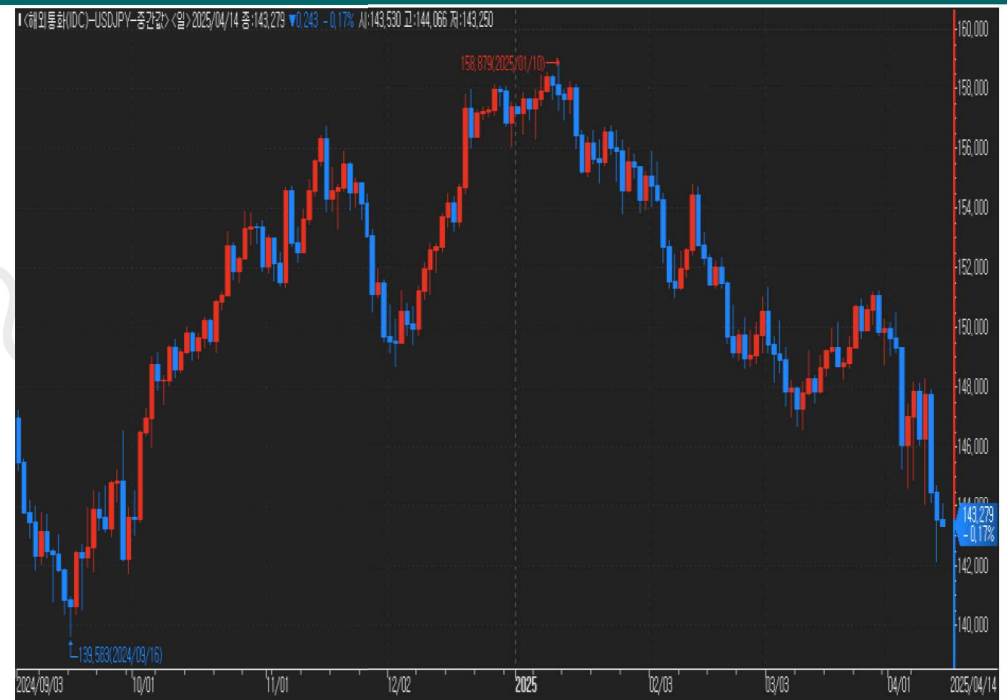
유로·엔화 동향 (4/7~4/11)



유로화 동향

- 초반, 관세 충격에 따른 유로존 침체 우려에 ECB가 차주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 속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 보이며 하락 출발. 이어 중국에 대한 104% 관세 부과로 경기침체 우려로 달러인덱스가 102로 후퇴하면서 유로 가치 상승 전환한 양상
- 중반 들어, 달러 가치가 경기침체를 반영하며 101대까지 밀리다 트럼프의 주요국 관세 90일 유예 소식 이후 103대로 올라서며 강세 전환함에 따라 유로화는 약세 흐름 시현
- 후반 들어, 미국의 대중 관세가 145%라고 발표한 백악관 소식 이후, 경기침체 우려가 촉발되며 달러인덱스가 101선 아래로 내려온 가운데 유로화는 상대적 강세 시현 후, 주 후반, 미-중 무역분쟁의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른 셀 USA 기조에, 달러 매도세 이어지며 유로화는 3년2개월여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세 보이며 마감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959	1.1473	1.0880	1.1360
			+0.0401



엔화 동향

- 주초, 미 행정부 관세 부과에 따른 중국의 보복 관세 부과 영향 등으로 무역 마찰 심화 시, 세계경기가 악화할 것이란 우려에 위험회피 심리 강화되며 엔화 환율 하락 출발. 이어 EU 집행위원장이 미국과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해 협상 준비가 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후퇴한 가운데 일본 또한 신속한 미국과 관세 협상에 나선 측면이 반영되며 위험자산 선호 영향 속에 엔화 강세 되돌림 시현. 중반 들어, 상호 관세 발효 속에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 통화인 엔화 매수세 증가로 강세 지속한 형국. 후반 들어, 간밤 트럼프의 상호 관세 유예 발표에 글로벌 금융통화시장이 위험 선호로 전환했지만, 일본 금융시장에서는 세계경기 둔화가 앞으로도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심리 팽배 등으로 엔화 가치 지지된 형국. 이어 주 후반 미-중 관세 갈등 격화에 달러 매력 하락 속 엔화 자산 수요 증가 속에 강세 흐름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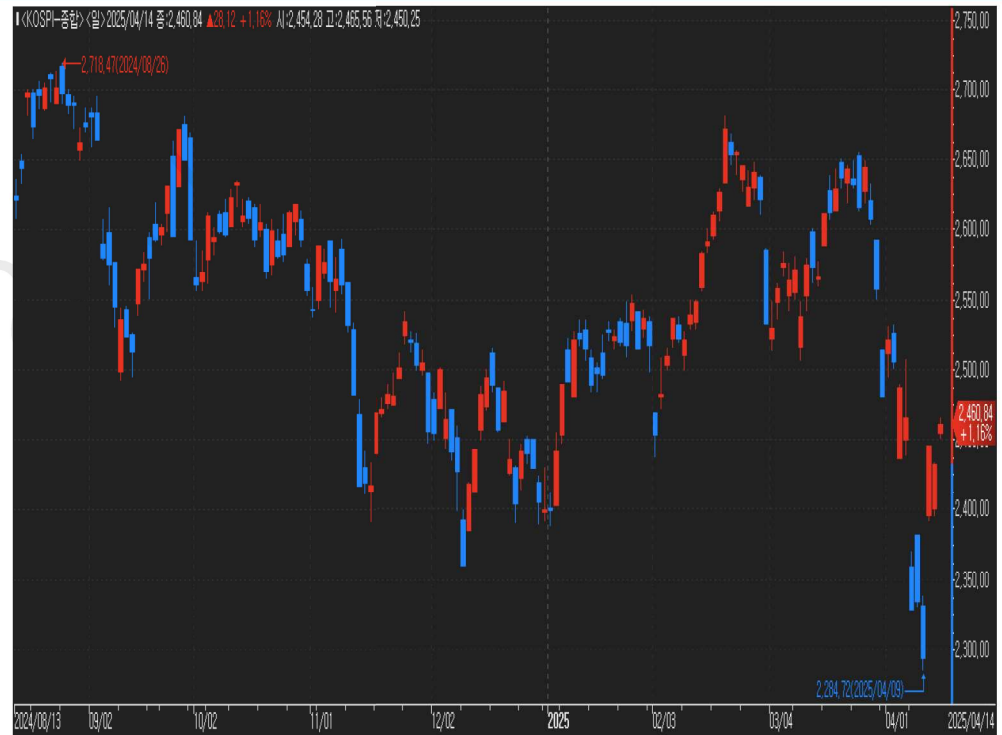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6.9	148.3	142.1	143.5	-3.4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4/7~4/11)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미-중 관세 갈등 격화에 글로벌 금리 급락 영향에 연동된 가운데, KDI가 국내 경제하방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한 측면 등이 미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 여건 급격한 악화와 함께 위험회피 심리 극대화 영향. 이어 전일 관세 관련 당국자 발언에 뉴욕 금융시장 일부 주가지수가 상승하며 위험 선호가 확산함에 따라 미 국채금리 상승에 연동
- 중반 들어, 트럼프정부 관세 폭탄에 미증시, 국채, 달러 동반 하락의 트리플 약세 속, 국고채 시장의 WGBI 편입 시점이 내년 4월로 변경되었다는 소식에 장기 구간 중심 상승 흐름 지속
- 후반 들어, 전일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조치로 위험 선호 심리가 되살아나며 중단기물 중심으로 소폭 상승 후, 주 후반, 미국 3월 CPI가 하락 추세 나타냈으나, 시장 주목도가 크지 않았던 가운데 기재부의 최근 경제동향에서의 국내 고용 애로와 대외 관세 여건에 하방 압력이 커졌다는 영향이 반영된 가운데 외국인 순매수 확대에 하락 전환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트럼프발 관세 전쟁 및 이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에 뉴욕 금융시장이 전 거래일 충격 받으면서 그 영향의 전이 속에 2,300대 초반까지 코스피 하락하며 출발. 당일 외국인 순매도는 코스피 시장 역대 5번째로 큰 규모였음. 이어 국내외 불확실성 지속에도 기업실적 모멘텀과의 균형을 찾는 움직임 속에 차주 추경 가능성 등에 대한 기대 등으로 강보합 전환
- 중반 들어, 중국의 미 관세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후, 추가 미국 50% 관세 부과 등으로 세계경기 침체 가속화 우려가 급증하며 외국인 순매도 확대 등으로 1년 반 만에 2,300선 아래로 풀썩 주저앉음
- 후반 들어, 코스피는 미국의 상호 관세 90일 유예 소식에 따른 안도 속에 위험 선호 강화되며 6% 이상 상승 속 2,440선대 복귀 후, 주 후반, 90일 관세 유예 등 화재에도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시장 의구심 속에 투자심리 약세를 반영하며 하락 지속 마감